

# 한국 음악대학 커리큘럼 분석 및 제언

– 20세기 이후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1)

김예진

## 1. 들어가면서

음악지각인지학자 도이치(Diana Deutsch)는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음악은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음악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논하였다. 또한 그는 어떠한 선율을 듣고 인식할 때, 그 기반이 조성음악에 있을 때에 훨씬 수월하게 인지, 지각할 수 있음을 여러 실험 결과들을 통해 설명하였다.<sup>2)</sup>

음악학자 마이어(Leonard B. Meyer, 1918-2007)에 의하면 음악을 들을 때 청자가 음악을 계속 기대하며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음악양식과 관련되어 온 습관적 반응 및 인간의 지각, 인식, 반응 방식, 즉 정신 생활의 심리학적 법칙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한다.<sup>3)</sup>

나모르(Eugene Narmour) 또한 마이어와 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기대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개개 자극의 형태적 종합으로써 지각될 뿐 아니라 청자가 학습해 온 음악 양식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실험을 통해 조성의 영향력이 선율 기대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sup>4)</sup> 선율이라는 수평적인 음들의 관계에서조차 조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최소 단위의 짧은 음악적 요소에서도 음악청취에서의 심리적 표상 형성이 문화적으로 형성된 음악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1)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304).

2) 도이치 논문의 근거 자료로 쓰인 실험결과는 J. Miller & L. L. Cuddy, “Tonality as a Cue for Melody Recognition,” *Experimental Report* 72/1 (1972)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3) Leonard B. Meyer,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30.

4) Eugene Narmour, *Cognitive Bases of Musical Commun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1), 69-90.

이와 연관되어, 조성적 맥락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크럼한슬(Carol L. Krumhansl)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5년 이상 음악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한 바 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개의 음을 들려주고 그 음을 기억하라고 하였고, 그 음 뒤에 조성적인 선율과 무조성적인 선율들을 들려준 후 후행음들의 조건이 첫 음을 기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였다.<sup>5)</sup> 실험 결과, 제시한 음 뒤에 조성 음악적 선율이 나올 때가 무조성적 선율이 나올 때 보다 기준음을 더욱 정확하게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이 결과 또한 한 음 혹은 어떠한 선율이 어떤 상황에서 들려지느냐가 그 음과 선율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들이 결속되고 응집되는 관습 규칙을 지닌 ‘조성’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관습이며, 우리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관습을 배워간다. 결국 인지와 기억의 아주 많은 부분이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계발(啓發)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습적 규칙에 대한 ‘학습’(learning)이 이루어져야만 인지와 기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문화인류학적으로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동화되는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을 밟아야만 후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음악의 잦은 노출, 학습,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경험들이 결국 익숙함을 넘어 ‘문화화’된다면, 청자는 자연스럽게 그 음악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선(先) 경험과 학습이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보통 우리가 조성음악을 들을 때에는 다음의 진행들을 다소 쉽게 예상하고, 기대하며 쫓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초반 제시된 매우 복잡하게 얽혀 등장하는 많은 음들을 그룹화하여 하나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이 반복되거나, 모방되거나, 혹은 여러 작곡 기술에 의해 변형되어 진행될 때, 그것들을 서로 “관계있음”으로 인식하고 음악적으로 “맥락화(脈絡化)”하여 감상자 스스로 음악의 진행을 간파하고 이해하면서 청취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음악을 즐긴다.’라고 평하는 음악 감상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매우 많은 양의 정보들을 덩어리로 간주하여 “부호화(符號化)”(encoding)하면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기억하기 쉽게 된다.<sup>6)</sup> 이와 같이 정보들을 축소화 시킬 수 있는, 잉여성(剩餘性)의 경우는 청자가 제시된 정보들과 친숙할 때에만 가능하다.<sup>7)</sup> 특정한 음악 양식에

5) Carol L. Krumhansl, “The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of Musical Pitch in a Tonal Context,” *Cognitive Psychology* 11/3 (1979), 346.

6) 제시된 물리적 정보의 양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보입력 방법에 의해 정보량이 줄어들었을 때, 축소된 부분을 정보이론 용어로 ‘잉여성(redundancy)’이라고 한다.

문화화 되어 익숙한 감상자만이 음악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개별적 울림이 아닌 그 작품의 맥락에 따라 하나의 움직이는 단위로 부호화하여 잉여성의 값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호화는 청자에게 친숙한 음악에 내재된 ‘보편적 원리’에 기대어 통계학적, 추계학(推計學)적 확률<sup>8)</sup>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sup>9)</sup>

통계학적, 추계학적 확률에 따라 인과율을 유추하려면 감상자의 해당 음악에 대한 친숙함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양식의 작품들 사이 “인과율”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작품들 사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문론이 존재하여, 이를 토대로 청자는 추계학적 확률로 양식화된 인과율을 통해 그 다음의 음악적 맥락을 ‘구조화’하여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음악은 그 음악들 사이 추계학적 확률 체제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 흐름·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청자는 여러 음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식화된 인과율 산출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청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 잉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른 추계학적 확률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조성이 없는 음악들, 예를 들어, 무조음악, 음렬음악, 현대음악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서두에서 아무리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음악에 대한 이해·인지·기억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도이치 학자의 논의를 인용했듯이, 20세기 이후의 음악을 청자가 한번 듣고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음악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계속 거듭하여 들여다보고, 들어야 한다. 무조음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론을 통해 작품 안을 살펴보고, 거듭 반복하여 청취함으로써 그 작품 안에 담긴 양식을 구조화하여 그 안에서 잉여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7) 부호화란 인지과정 혹은 정보 처리 과정의 한 형태로, 청각, 시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 정보는 작업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 부호화가 안 되면 입수된 대부분의 정보는 일시적인 저장만 가능하게 된다. 부호화 전략으로는 시연(rehearsal), 매개, 심상, 기억법 등이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2009) “부호화.”

8) 추계학적 확률(stochastic)이란 흔히 추측 통계학으로도 불리며,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표본에 따라 모집단의 상태를 추측하는 학문이다. 주로 수확분야에서 다루지고 있으나, 실생활에서의 적용 범위가 없어 자연과학, 공학 외에도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학문이다.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여초, 2014), “추계학적 확률.”

9) “도이치는 통계학적 확률과 추계학적 확률 모두가 음악을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세기의 음렬기법이 이러한 전통적 확률이론을 저버린 점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한다.” 이석원, 『음악 인지과학』 (서울: 심설당, 2013), 405.

다음의 음악적 맥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잉여성이 없으면 정보는 축소될 수 없고, 축소되어 구조화 할 수 없다면 그 작품에 제시된 많은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받게 된 감상자는 음악의 주된 선을 혹은 음향을 부호화하여 기억할 수 없어 음악적 맥락을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바른 청취, 이해, 감상으로 연결될 수 없게 된다.<sup>10)</sup>

공통적 잉여성이 존재하고 익숙함을 넘어 보편적으로 문화화되어 구조화 청취가 가능한 조성 음악도 보다 깊은 이해·연주를 위해서는 한 번의 감상에서 끝내지 않는다. 여러 번의 청취와 더불어 그 음악 안에 담긴 이야기를 화성, 선율, 대위, 형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훈련을 하며, 작품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부호화’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구조화하는 시대적 양식을 습득하여, 그 작품 안에 담긴 음악의 맥락을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가능토록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음악 대학 커리큘럼에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업 형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청취와 작품 연구를 통해,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음악적 사건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를 서로 맞추어 나가게 되고 그러한 방식의 지각적 “학습”은 능동적인 청취를 점차 향상 시켜 나갈 것이다.

조성음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이 아주 없고, 익숙하고 문화화된 공통된 음악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연주해야하고, 어떻게 들어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조성에서 벗어난 음악들에 대한 교육은 앞서 살펴본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음악대학 3,4학년이 되면 전공실기 연주 지정곡으로 20세기, 21세기 작품을 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구에 합당하게 20, 21세기 작품들을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은 매우 모순된 상황으로 보다 깊은 차원의 해석, 연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 작품을 분석해 연주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담당 실기 교수 또한 테크닉, 전체적 작품 스타일 정도만 지도 가능하기에, 작품 해석에 대한 확실성 없이 학위과정의 전공실기 곡을 그저 실수 없이 연주한 것에 만족하며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 21세기 한국 음악대학의 상황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기의 변화를 맞이하였고, 음악과 관련된 많은 분야들도 정말 변화에

10) 20세기 음악에는 우연성 음악과 같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작품도 존재한다.

변화를 거듭하여 다각적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의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선경험이 없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조성음악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선율과 음향이기에 때문에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것을 음악으로서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무조음악, 음렬음악, 현대음악 등 조성음악에서 벗어난 음악들은 작품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인과율적 체계, 서로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거듭 청취하며 그 작품만의 음악적인 것을 ‘느끼고’, ‘음악적 이해’의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안의 음악적 ‘이야기’, 어떠한 미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성에서 벗어난 음악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육’을 통해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무조음악, 현대음악에 대한 공감의 어려움은 결국 음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 청중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이 여전히 조성음악에만 집중적으로 초점 맞추어진 것은 21세기 음악대학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21세기 음악가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 개발, 확립 촉구 등과 관련된 연구도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면밀히 조사·점검하고, 외국의 우수한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들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 음악대학에 맞는 이상적인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2. 한국 음악대학 커리큘럼 분석

제 2장에서는 현재 한국 음악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이다.<sup>11)</sup>

11) 서울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

(표1)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전공별 이수 과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sup>12)</sup> 작곡과, 작곡 이론과를 제외한 실기전공 학과들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조성음악과 관련된 기본 역량 함량을 위한 수업으로 화성법 및 대위법 1-4(8학점), 시창·청음1-4(4학점), 건반화성(1학점), 서양음악사1-4(8학점), 음악분석1-4(8학점)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악보 생산 기술 교육을 위한 음악소프트웨어연습 과목과, 음악학 영역에서 음악의 울림을 중심으로 그 원리를 배우는 음향학, 음향학개론이 있으며, 국악과를 보유한 음악대학 실정에 맞게 국악 관련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재즈,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와 같이 정통 조성음악과는 다른 장르의 대중성 있는 음악의 수업들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작곡과를 제외한 다른 전공 학과에서는 조성 이후의 음악이나 현대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전혀 개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실기 전공 학생들이 음악대학 학부 과정 중 20, 21세기와 관련된 수업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쌓아 졸업여건에 맞게 모든 과목들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20세기 이후 작품의 연주에 있어서는 배움이 전무하여 연주의 레퍼토리가 조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음악세계일 것이고, 그 연주가 과연 '바른 연주'로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표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관현악	화성법 및 대위법1-4(8), 시창·청음1-4(4), 건반화성(1), 서양음악사1-4(8), 음악분석1-4(8), 연주(1), 관악합주1-2(2), 관현악1-2(4), 실내앙상블(1), 현악합주(1), 현악문헌1-2(6)	음악소프트웨어연습1(2), 음악소프트웨어연습2(2), 지휘법1(2), 지휘법2(2), 총보독법(1), 음향학개론1(2), 음향학 개론2(2), 음향학개론2(2),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2), 부전공악기(컴퓨터음악)(1), 국악가창지도법(3), 음악교육론(2), 부전공악기(1), 관악문헌(3), 재즈입문1(2), 관현악문헌연주실기1(2), 현악기 구조 및 관리(1)
성악	화성법 및 대위법1-4(8), 시창·청음1-4(4), 건반화성(1), 서양음악사1-4(8), 음악분석1-4(8),	음악소프트웨어연습1(2), 음악소프트웨어연습2(2), 지휘법1(2),

악대학 커리큘럼의 문제가 비단 한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

12) 김예진, “음악지각인지 연구 고찰을 통한 무조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공학』 26 (2016) 135-149.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커리큘럼 자료는 2016년, 김예진 논문에 실린 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을 추가하였다.

	연주(1), 이태리어디션(3), 영어디션(2), 오페라 워크숍(2)	지휘법1(2), 총보독법(1), 음향학개론1(2), 음향학개론2(2),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2), 부전공악기(컴퓨터음악)(1), 국악가창지도법(3), 음악교육론(2), 부전공악기(1), 합창합주지도법(2), 성악인을 위한 이탈리아어1(2), 종교가곡 및 바로크성악곡(2), 오페라사1(2), 오페라코칭1(2), 한국가곡(2)
작곡	대위법1-4(각2), 화성법1(2), 화성법2(2), 작곡포럼(1), 악기론1-2(각1), 전자음악실기(2), 지휘실기(2)	음악소프트웨어연습1(2), 음악소프트웨어연습2(2), 지휘법1(2), 지휘법2(2), 총보독법(1), 음향학개론1(2), 음향학개론2(2),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2), 부전공악기(컴퓨터음악)(1), 국악가창지도법(3), 음악교육론(2), 부전공악기(1), 관현악법(3), 전자음악 이론 및 실습1(2), 푸가(3), 현대음악사1(2)
작곡이론	음악이론세미나1-4(8), 대위법1-4(4), 화성법1-4(4), 음악학개론(3), 음악이론사1(3), 음악이론사2(3), 전공이론(2)	음악소프트웨어연습1(2), 음악소프트웨어연습2(2), 지휘법1(2), 지휘법2(2), 총보독법(1), 음향학개론1(2), 음향학개론2(2),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2), 부전공악기(컴퓨터음악)(1), 국악가창지도법(3), 음악교육론(2), 부전공악기(1), 음악신경과학연구(3), 서양음악사문헌1-4(각2), 음악사회학(3)
피아노	화성법 및 대위법1-4(8), 시창·청음1-4(4), 건반화성(1), 서양음악사1-4(8), 음악분석1-4(8), 연주(1), 피아노문헌세미나(3), 기악반주(2), 성악반주(2), 피아노문헌1(3), 피아노문헌2(3)	음악소프트웨어연습1(2), 음악소프트웨어연습2(2), 지휘법1(2), 지휘법2(2), 총보독법(1), 음향학개론1(2), 음향학개론2(2), 영화음악의 이론과 실제(2), 부전공악기(컴퓨터음악)(1), 국악가창지도법(3), 음악교육론(2), 부전공악기(1), 실내앙상블(2), 피아노구조 및 관리(2), 피아노교수법(3)

(표2)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을 살펴보면, 전공기초 과목으로 조성음악의 기본 어법인 화성학 수업과 시창·청음 수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공필수 과목들 또한 대위법, 형식과 분석, 건반화성 등 모든 과목들이 조성음악 양식과 관련된 수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 선택 과목들에는 각 전공과 관련된 기본 테크닉 수련을 위한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다. 실기전공 전공 선택 교과목 중에서는 20세기 성악 수업, 현대음악 앙상블 과목의 개설을 통해 조성 이후 시대의 작품을 보다 집중해서 살펴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곡과에서는 20세기 이후 음악과 관련된 수업으로 음열기법과 전자음악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표2)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기초 (학점)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관현악	화성학1-2(4), 시창·청음1(2)	화성학3-4(4), 시창·청음2-4(6), 대위법(3), 형식과 분석(3). 음악사1(2), 음악사2(2), 음악사3(2), 음악사4(2), 관현악1-8(각2), 전공실기1-8(20)	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워크샵(1), 창작곡연주(1), 특수악기연주세미나(1), 피아노부전공(2), 현합주(1), 관합주(1), 교회음악합창(1), 독일어덕션(1), 이태리어덕션(1), 오라토리오클래스(1), 통주저음(2), 합창음악분석(2), 성악세미나(3), 불어덕션(1), 주니어세미나(저널탐색)(1), 바로크음악(2), 합창지휘클래스(2), 오르간즉흥연주법(2), 음악문헌(2), 음향학(2), 오페라워크샵(1), 가창(2), 오르간문헌(2), 합창지휘클래스(2), 성악양상블(2), 피아노교수법(3), 스즈키메소드(3), 오르간클래스(3), 관현악지휘법(2), 음악학개론(2), 오페라양상블(2), 20세기성악(2), 피아노반주법(3), 현대음악양상블(3), 하프시코드클래스(3), 악기론(2), 합창편곡법(2), 푸가(2), 음열기법(2), 전자음악개론(1), 전자음악1(2), 전자음악2(2), 국악개론(2), 16세기대위법(2), 실용음악(2),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2)
교회음악	화성학1-2(4), 시창·청음1(2)	화성학3-4(4), 시창·청음2-4(6), 대위법(3), 형식과 분석(3). 음악사1(2), 음악사2(2), 음악사3(2), 음악사4(2), 합창1-4(각2), 찬송가학(3), 전공실기1-8(20)	
성악	화성학1-4(8), 시창·청음1-4(8)	대위법(3), 형식과 분석(3). 음악사1(2), 음악사2(2), 음악사3(2), 음악사4(2), 합창1-4(각2), IPA(1), 음성학(2), 성악문헌1(2), 성악문헌2(2), 이태리가곡클래스1(2), 이태리가곡클래스2(2), 독일가곡클래스2(2),영어가곡클래스1(2), 영어가곡클래스2(2), 불란서가곡클래스1(2),불란서가곡클래스2(2), 전공실기1-8(20)	
작곡	화성학1-4(8), 시창·청음1-4(8)	음악사1(2), 음악사2(2), 음악사3(2), 음악사4(2), 합창1(2), 합창2(2), 합창3(2), 합창4(2), 악기론1(2), 악기론2(2), 현대음악문헌(3), 현대음악분석(3), 국악개론(3), 대위법(3), 형식과분석(3), 관현악법(3), 작곡세미나(3), 전공실기1-8(20)	
피아노	화성학1-4(8), 시창·청음1-4(8)	대위법(3), 형식과 분석(3). 음악사1(2), 음악사2(2), 음악사3(2), 음악사4(2), 합창1(2), 합창2(2), 합창3(2), 합창4(2), 건반화성1(3), 건반화성2(3), 건반화성3(3), 건반화성4(3), 피아노문헌1(3), 피아노문헌2(3), 피아노문헌3(3), 피아노문헌4(3), 실내악(4), 전공실기1-8(20)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전공필수로 정한 과목의 수가 현저히 많다. 그 중 공통전공필수 과목을 살펴보면, 서양음악문법을 6학기동안 3학점씩 이수하여야 하며, 시창·청음은 4학기동안 12학점, 음악사는 2학기를 통해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성음악

교육을 위한 체계적 수업 설계 부분이다. 조성음악의 화성어법에서 시작하여 조성음악의 구조, 형식 분석에 이르기까지 6학기를 통해 조성음악의 미시적 분석으로 부터 거시적 조망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하여 조성음악의 심도 있는 분석·해석 능력 함양이 가능토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연주자 중심의 특성화된 학교에 맞게, 연주자들의 주된 레퍼토리인 조성음악의 양식을 제대로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연주가 가능하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조성에서 벗어난 음악과 관련하여서는 타악기 전공에서 재즈 타악기 수업을 유일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작곡과에서는 전공 선택으로 재즈의 이해, 재즈 실습, New Sounds를 개설하고 있다. 역시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조성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매우 체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조음악, 현대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필수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 최근 많은 국내, 국제 콩클에서 지정곡으로 20세기, 21세기, 현대음악 작품들의 연주를 요하는 상황을 본다면, 조성음악의 커리큘럼처럼 20세기 이후 작품들에 대한 교육과정도 단계적·체계적 학습이 가능토록 커리큘럼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표3)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필수(학점)	공통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기악	피아노	전공실기(32), 건반화성1(2), 건반화성2(2), 피아노문헌1-6(각2), 피아노워크샵(1), 연주수업(1)	서양음악문법1-6(18), 시창청음1-4(12), 서양음악사1-2(4)	피아노문헌1-6(각2), 피아노워크샵(1), 전공실기(4), 반주1-8(각1), 피아노듀오(1), 실내악(1), 성악실기(1), 바로크실내악(1), 총보독법(1), 창작곡연주(1), 합창1-4(각2), 성악실기(1), 바로크악기연주법(2)
	오르간	전공실기(32), 오르간구조(2), 오르간워크샵(1), 통주저음1(2), 오르간문헌1-4(각2), 건반화성1(2), 건반화성2(2)		총보독법(1), 창작곡연주(1), 합창1-4(각2), 성악실기(1), 바로크실내악(1), 바로크악기연주법(2)
	바이올린, 비올라	전공실기(32), 워크샵1-8(각1), 실내악1-8(각1), 오케스트라(3),		총보독법(1), 창작곡연주(1), 합창1-4(각2), 성악실기(1), 바로크악기연주법(2), 클래식 피아노1-4(1), 현악앙상블(2), 바로크실내악(1)

	관악기	전공실기(32), 워크샵1-8(각1), 실내악1-8(각1), 오케스트라(3), 바로크실내악(1), 리코더문헌1-2(각2), 목관 워크샵(1), 금관워크샵(1)		총보독법(1), 창작곡연주(1), 합창1-4(각2), 성악실기(1), 바로크악기연주법(2), 클레스피아노1-4(각1), 바로크실내악(1)
	타악기	전공실기(32), 워크샵1-8(각1), 타악기 앙상블(1), 관악합주(1) 타악기워크샵(1), 오케스트라(3), 리코더문헌1-2(각2), 타악워크샵(1)		총보독법(1), 창작곡연주(1), 합창1-4(각2), 성악실기(1), 바로크악기연주법(2), 라틴 타악기(2), 재즈 타악기(2), 클레스피아노1-4(각1)
성악	전공실기(32), 한국가곡실습1(2), 한국가곡실습2(2), 영어디션1(2), 영어디션2(2), 불어디션1(2), 불어디션2(2), 독어디션1(2), 독어디션2(2), 이탈리아어디션1(2), 이탈리아어디션2(2), 콘서트콰이어(1), 클레스피아노1-3(3), weekly recital(1), 한국가곡실습1-2(2), 성악문헌1-4(8),	서양음악문법1-4(8), 시창청음1-4(12), 서양음악사1-2(4)	합창1-4(8), 예술가곡실습1-8(16), 창작곡연주, 오페라밧가곡코치1(2), 오페라밧가곡코치2(2), 성악앙상블, 이태리어회화1-2(2), 독일어회화1-2(2), 합창지휘법1-2(2), 오페라클래스(2)	
작곡	전공실기(16), 합창1(2), 합창2(2), 작곡세미나(2), 국악의 이해1(2), 국악의 이해2(2), 관현악법1-4(8), 20세기 서양음악1-4(8), 서양음악분석1-4(8), 18세기대위법1(2), 18세기대위법2(2), 16세기대위법1(2), 16세기대위법2(2), 악기론1(2), 악기론2(2), 소리합성법1(2), 소리합성법2(2) 음악과컴퓨터1(2), 음악과컴퓨터2(2), 고급화성1(2), 고급화성2(2), 작곡워크샵(1)	시창청음1-4(12), 서양음악사1-2(4)	기악실기(1), 합창3(2), 합창4(2), 국악기실습(가야금)(1), 영상음악실습1(2), 영상음악실습2(2), 고급건반화성1(2), 국악기실습(거문고)(1), 한국장단1(2), New Sounds(2), 총보독법(1), 국악관현악법1-2(2), 소리합성법1-2(2), 주제별특강(2), 재즈의이해(2), 재즈실습(2), 문화예술교육개론(2), 고전·낭만 음악사(2)	
지휘	전공실기(32), 체임버콰이어(1), 오페라지도법(2), 건반화성및통주저음1(2), 건반화성및통주저음2(2), 대위1-4(각2), 관현악곡분석(2), 지휘워크샵(1), 총보독법(2), 합창문헌1-2(각2), 부전공실기(2), 성악실기(1),	서양음악문법1-6(18), 시창청음1-4(12), 서양음악사1-2(4)	기악실기(1), 합창1-4(8), 서양음악분석1-4(8), 고급건반화성1-2(4), 오페라지도법(2), 성악실기(1), 오페라클래스1-8(16), 합창문헌3-4(4), 피아노문헌(2), 합창발성의 실제(1)	

서울시립대학교는 전공별 이수과목을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2가지 종류로 나누어 개설하고 있다. 전공 필수로 역시 조성음악의 기본 어법인 기초음악이론과 화성 수업, 그리고 형식과 분석, 건반화성, 대위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공 선택에서 좀 더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조명할 수 있도록, 인벤션과 푸가, 연주자를 위한 바로크음악을 개설하고 있다. 조성음악 이후 시대와 연관된 수업으로는 무조음악분석, 쇤베르크 악파와 음열기법, 현대음악분석이 있다. (작곡과 전공 선택 과목)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서 20세기 이후 음악을 음열기법, 무조음악, 현대음악으로 세분화 하여 개설함으로 보다 깊은 고찰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4) 서울시립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관현악	전공실기1-8(8), 화성1-4(8), 합창1-6(6), 시창청음1-4(8), 합주1-4(8), 기초음악이론1-2(4), 형식과분석1-2(4), 학업설계담당1-2(0), 서양음악사1-2(4), 대위A1-2(4), 건반화성1-2(4),	악기론(2), 관악합주1-6(2), 현악합 주1-6(2), 콜라보연주법(2), 컴퓨터음악(2), 실내악앙상블1-2(2), 피아노앙상블1-2(2), 현대음악분석(2), 조성음악분석(2), 무조음악분석(2), 불어덕션및가곡1-2(2), 인벤션과푸가(2), 쇤베르크 악파와 음열기법(2), 연주자를위한바로크음악(2), 고급콜라보연주법(2), 퍼포먼스워크샵(2), 성악문헌(2), 지휘법(2), 관현악법(2), 영어덕션및영미가곡(2)
성악	전공실기1-8(8), 화성1-4(8), 합창1-6(6), 시창청음1-4(8), 합주1-4(8), 기초음악이론1-2(4), 형식과분석1-2(4), 학업설계담당1-2(0), 서양음악사1-2(4), 대위A1-2(4), 건반화성1-2(4), 독일어덕션및가곡1-2(4), 오페라워크샵(2)	
작곡	전공실기1-8(8), 화성1-4(8), 합창1-6(6), 시창청음1-4(8), 형식과분석1-2(4), 학업설계담당1-2(0), 서양음악사1-2(4), 대위A1-2(4), 건반화성1-2(4)	
피아노	전공실기1-8(8), 화성1-4(8), 연주1-4(0), 합창1-6(6), 시창청음1-4(8), 합주1-4(8), 기초음악이론1-2(4), 형식과분석1-2(4), 학업설계담당1-2(0), 서양음악사1-2(4), 대위A1-2(4), 건반화성1-2(4), 피아노문헌1-2(4), 연주및세미나1-2(4), 피아노교수법1-2(4)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2018년에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다시 재정비하여 학과 세부 전공 별로 학년, 학기에 이수해야하는 학부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표5) 다른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조성음악과 관련된 화성학, 음악분석, 대위법 수업들을 기본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입시를 통해 조성음악 어법을 미리 익히고 온 작곡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2학년 때부터 20세기 음악 어법과 관련된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다. 정비한 시행세칙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바로 20세기 이후 작품 연주를 접하게 되는 관현 전공과 피아노 전공의 3학년 수업 1학기과 2학기에 개설하고 있는 '20세기 음악'과목이다. 물론 20세기 이후 작품을 기초 분석방법론, 음렬기법, 현대음악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설하고 있진 않지만, 작곡 전공이 아닌 실기전공 수업에 20세기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커리큘럼을 수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5)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이수학기	교과목명(또는 이수내용)	
관현악	1	1학기 관현실기1, 시창 청음1, 기초 화성학 및 음악분석1, 교향악1, 현악합주1, 관악합주1, 부전공1, 오케스트라레퍼토리1	
		2학기 관현실기2, 시창 청음2, 기초 화성학 및 음악분석2, 교향악2, 현악합주2, 관악합주2, 실내악1, 부전공2, 오케스트라레퍼토리2	
	2	1학기 관현실기3, 시창 청음3, 음악감상 및 해석1, 고급 화성학 및 음악분석1, 연주1, 교향악3, 현악합주3, 관악합주3, 실내악2, 음악사1, 부전공3	
		2학기 관현실기4, 시창 청음4, 음악감상 및 해석2, 고급 화성학 및 음악분석2, 연주2, 교향악4, 현악합주4, 관악합주4, 실내악3, 음악사2, 부전공4	
	3	1학기 관현실기5, 대위법 및 음악형식1, 연주3, 20세기 음악, 교향악5, 관악합주5, 실내악4, 악기론, 음악사3, 독립심화학습1(기악과), 교과교육론(음악-교직)	
		2학기 관현실기6, 대위법 및 음악형식2, 연주4, 20세기음악, 교향악6, 관악합주6, 음악사4, 캡스톤디자인(음악), 독립심화학습2(기악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음악-교직), 교과논리 및 논술(음악-교직)	
	4	1학기 관현실기7, 기악문헌1, 교향악7, 관악합주7, 지휘법1, 독립심화학습1(기악과)	
		2학기 관현실기8, 기악문헌2, 교향악8, 관악합주8, 지휘법2, 독립심화학습2(기악과)	
	성악	1	1학기 성악실기1, 기초 화성학 및 음악분석1, 시창, 청음1, 부전공1, 이태리가곡 클래스1, 합창1, 독일가곡 클래스1
			2학기 성악실기2, 기초 화성학 및 음악분석2, 시창, 청음2, 부전공2, 이태리가곡 클래스2, 합창2, 독일가곡 클래스2
2		1학기 성악실기3, 무대자세 및 연기법1, 시창, 청음 3, 음악사1, 부전공3, 연주1, 합창3, 독일가곡 클래스3	
		2학기 성악실기4, 무대자세 및 연기법2, 시창, 청음4, 음악사2, 부전공4, 프랑스가곡 클래스1, 연주2, 합창4, 독일가곡 클래스4	
3		1학기 성악실기5, 악기론, 음악사3, 국악개론1, 부전공5, 실용 이태리어1, 실용 독일어1, 프랑스가곡 클래스2, 연주3, 합창5, 오페라 클래스1, 오페라코칭 및 스코어 리딩1, 독립심화학습1(성악과), 교과교육론 (음악-교직)	
		2학기 성악실기6, 음악사4, 국악개론2, 부전공6, 실용 이태리어2, 실용 독일어2, 영미가곡 및 IPA1, 연주4, 합창6, 오페라 클래스2, 오페라코칭 및 스코어 리딩2, 캡스톤디자인(음악), 독립심화학습2(성악과),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음악-교직), 교과논리 및 논술 (음악-교직)	
4		1학기 성악실기7, 성악문헌1, 음악교수법, 지휘법1, 영미가곡 및 IPA2, 연주자과정1, 오페라 클래스3, 오페라코칭 및 스코어 리딩1, 독립심화학습1(성악과)	
		2학기 성악실기8, 성악문헌2, 지휘법2, 연주자과정2, 오페라 클래스4, 오페라코칭 및 스코어 리딩2, 독립심화학습2(성악과)	

작곡	1	1학기	작곡실기1, 부전공1, 합창1, 전통화성학1, 16세기대위법1, 청음1, 악기론1
		2학기	작곡실기2, 부전공2, 합창2, 전통화성학2, 16세기대위법2, 청음2, 악기론2
	2	1학기	작곡실기3, 부전공3, 합창3, 현대화성학1, 18C 대위법 및 푸가1, 관현악기법1, 음악사1, 작곡발표1, 전자음악입문1, 작품분석1
		2학기	작곡실기4, 부전공4, 합창4, 현대화성학2, 18C 대위법 및 푸가2, 관현악기법2, 음악사2, 작곡발표2, 전자음악입문2, 작품분석2
	3	1학기	작곡실기5, 부전공5, 합창5, 관현악기법3, 음악사3, 현대음악론1, 국악기법1, 전자음악1, 작곡발표3, 독립심화학습1(작곡과), 교과교육론(음악-교직)
		2학기	작곡실기6, 부전공6, 합창6, 관현악기법4, 음악사4, 현대음악론2, 국악기법2, 전자음악2, 작곡발표4, 캡스톤디자인(음악), 독립심화학습2(작곡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음악-교직), 교과논리 및 논술(음악-교직)
	4	1학기	작곡실기7, 작곡세미나1, 음향학1, 지휘법1, 전자음악3, 독립심화학습1(작곡과)
		2학기	작곡실기8, 작곡세미나2, 음향학2, 지휘법2, 전자음악4, 독립심화학습2(작곡과)
피아노	1	1학기	피아노실기1, 기초화성학 및 음악분석1, 시창청음1 초건과 총보독법1, 합창1, 부전공1, 피아노 듀오1
		2학기	피아노실기2, 기초화성학 및 음악분석2, 시창청음2 초건과 총보독법2, 합창2, 부전공2, 피아노 듀오2
	2	1학기	피아노실기3, 고급화성학 및 음악분석1, 시창청음3, 부전공3 음악사1, 연주1, 합창3, 건반화성학1, 컴퓨터미디어응용1, 피아노 듀오3
		2학기	피아노실기4, 고급화성학 및 음악분석2, 시창청음4, 부전공4 음악사2, 연주2, 합창4, 건반화성학2, 컴퓨터미디어응용2, 피아노듀오4
	3	1학기	피아노실기5, 연주3, 피아노문헌1, 음악사3, 20세기음악, 국악개론1, 합창5 대위법과 및 음악형식1, 피아노의 구조와 조율1, 악기론, 독립심화학습1(기악과), 교과교육론(음악-교직), 부전공5
		2학기	피아노실기6, 연주4, 피아노문헌2, 음악사4, 20세기음악, 국악개론2, 합창6 피아노의 구조와 조율2, 대위법과 및 음악형식2, 관현악법, 캡스톤디자인(음악), 독립심화학습2(기악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음악-교직), 교과논리 및 논술(음악-교직), 부전공6
	4	1학기	피아노실기7, 피아노문헌3, 피아노교수법1, 반주법1 지휘법1, 음악심리학, 독립심화학습1(기악과)
		2학기	피아노실기8, 피아노문헌4, 피아노교수법2, 반주법2 지휘법2, 음악치료학, 독립심화학습2(기악과)

(표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 음악대학은 전공핵심 과목으로 조성음악과 관련된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들과 함께 한국음악,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음악교육론, 음악교수학습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정서가 담긴 음악과 음악교육자로서의 기본 역량 학습도 전공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음악사, 대위법의 조성음악 연관 수업에 더해 현대음악개론, 현대음악, 현대작곡기법, 음악치료학, 음악과 컴퓨터, 음악미학, 문화예술과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다.

(표6) 충남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기초 (학점)	전공핵심(학점)	전공심화(학점)
관현악	미래설계상당1-6(0)	전공실기1-2(2), 전공실기3-4(6), 한국음악(2), 시창·청음1-2(6), 화성법1-4(8), 음악분석(2),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2), 합창1-4(8), 음악이론(2), 건반화성1-2(4), 음악교육론(2), 음악교수학습방법(2)	전공실기5-8(12), 현대음악개론(2), 음악사1-4(12), 전자음악1-2(4), 18세기대위법(2), 연주및비평1-4(8), 음악치료학(2), 실용음악(2), 합창5-8(8), 성악문헌1-2(4), 오페라클래스3-4(4), 영미가곡(2), 현대음악(3), 반주법1-2(4), 피아노실내악1-2(4), 피아노교수법1-2(4), 음악과컴퓨터(2), 작곡법(2), 합창지휘법(2), 음악미학(2), 문화예술및경영(2), 러시아가곡(2), 현대작곡기법(2),
성악		전공실기1-2(2), 전공실기3-4(6), 한국음악(2), 시창·청음1-2(6), 화성법1-4(8), 음악분석(2),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2), 합창1-4(8), 음악이론(2), 이탈리아가곡1-2(4), 독일가곡1-2(4), 불어가곡1-2(4), 오페라클래스1-2(4), 건반화성1-2(4), 음악교육론(2), 음악교수학습방법(2), 성악클래스(2)	
작곡		전공실기1-2(2), 전공실기3-4(6), 한국음악(2), 시창·청음1-2(6), 화성법1-4(2), 음악분석(2),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2), 합창1-4(8), 음악이론(2), 컴퓨터사보연구(2), 관현악법(3), 건반화성1-2(4), 음악교육론(2), 음악교수학습방법(2), 현대화성(2), 16세기대위법(2), 푸가(2)	
피아노		전공실기1-2(2), 전공실기3-4(6), 한국음악(2), 시창·청음1-2(6), 피아노클래스1-2(4), 화성법1-4(8), 음악분석(2),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2), 합창1-4(8), 음악이론(2), 건반화성1-2(4), 피아노문헌1-2(4), 음악교육론(2), 음악교수학습방법(2)	

전북대학교는 이수과목을 학년별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조성음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통합기초음악이론 수업과 감상과 비평,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국악개론 수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학년에서는 서양음악사 수업과 통합기초음악이론 3-4 수업들과 함께 전공과 관련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음악사 3-4, 통합기초이론 5-6 수업에 더해, 전공과 관련된 문헌 수업과 음악교육론, 전자음악, 음악기획제작 및 시연,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같은 보다 심화된 수업, 음악 교육자 양성을 위한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에서는 음악논리 및 논술, 음악치료학, 음악미학, 예술 융합 교수법, 창의적 방법을 통한 음악 교수법, 현대음악이론과 같이 보다 심화된 음악교육 관련 수업들과 다각적 관점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표7) 전북대학교 음악과 이수 과목

전공	학년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음악과	1	전공실기1-2(4)	부전공실기1-2(2), 합창•합주1-2(2), 통합기초음악이론1-2(4), 감상과비평(1), 관현합주1-2(1), 국악개론(1)
	2	전공실기3-4(4)	부전공실기3-4(2), 합창•합주3-4(4), 서양음악사1-2(4), 통합기초음악이론3-4(4), 연주1-2(4), 시장•청음1-2(4), 가창1-2(2), 디션1-2(2), 반주법1-2(2), 뮤지컬실습1-2(2), 성악실내악1-2(2), 기악실내악1-2(2), 관현합주3-4(2)
	3	전공실기5-6(4)	합창•합주5-6(4), 서양음악사3-4(4), 연주3-4(4), 통합기초이론5-6(4), 전자음악1-2(2), 음악교육론(3), 디션3-4(2), 관현합주5-6(2), 건반화성1-2(4), 성악문헌1-2(4), 피아노문헌1-2(4), 관현문헌1-2(4), 작곡문헌1-2(4), 음악기획제작및시연(2),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3)
	4	전공실기7-8(4), 졸업연주(2)	합창•합주7-8(4), 지휘법1-2(4), 음악미학(2), 창의적방법을통한음악교수법(2), 악기론및관현악법(2), 오페라클래스1-2(4), 현대음악이론(2), 음악논리및논술(2), 작곡법(2), 음악영상제작기법(1), 예술융합교수법(2), 음악치료학(2)

경북대학교 역시 학년별로 이수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조성음악과 관련된 기초 과목들, 음악 기초이론, 화성법, 음악 감상법 수업과 함께 음악 교수 학습 방법,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같은 음악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역량에 대한 교육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2학년 과정에서는 조성음악과 관련된 수업으로 화성학, 이론과 실습, 대위법, 건반화성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공 실기 관련 수업과 컴퓨터 음악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3학년 과정에서는 조성음악과 관련된 수업으로 대위법, 형식과 분석, 전공별 문헌, 음악사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외 과목들은 현대화성, 현대 음악론, 컴퓨터 음악을 개설하여 20세기 이후 음악의 기본 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 과정에서는 다시 조성음악에 초점을 맞춰 그와 관련된 수업들만 개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이수 과목

전공	학년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음악과	1	전공실기1-2(2)	음악 교수 학습방법(2), 시창·청음1-2(2), 작곡 기초이론1-2(2), 음악 기초이론, 전공 화성법1-2(4), 합창1-2(4), 합주1-2(4), 음악 감상법1-2(2), 음악 교 육프로그램 개발(2), 일반 화성학1(2), 이태리어디션(1), 커뮤니케이션 기법(2)
	2	전공실기3-4(2), 전공 화성법4(2), 피아노양상블2(1), 건반화성2(2)	이론과 실습1-2(2), 일반 화성학2-3(4), 피아노 테크닉1-2(2), 관현악 제2실기1-2(2), 연주1-2(2), 전공 대위법1-2(4), 전공 화성법3(2), 합창3-4(4), 합주3-4(4), 성악 제2실기1-2(2), 피아노제2실기1-2(2), 피아노양상블1-2(2), 건반화성1(2), 작곡 클래스1-2(4), 컴퓨터 음악1-2(4), 관악합주1-2(2), 현악합주1-2(2), 실내악1-2(2), 서양음악사1-2(4), 독일어디션(1)
	3	전공실기5-6(2), 전공 대위법3(2), 작곡 클래스3(2), 서양음악사3-4(2), 프랑스어디션(1), 연주4(1), 형식과 분석2(2), 합창6(2), 오페라클래스2(1), 피아노 문헌2(2), 관현악 문헌2(2), 서양음악사4(2)	현대화성1-2(4), 피아노반주법1-2(4), 대위법1-2(4), 연주3(1), 형식과 분석1(2), 합창5(2), 합주5-6(4), 오페라클래스1(1), 성악 문헌1-2(4), 피아노 문헌1(2), 작곡법(2), 관현악법1-2(4), 관악합주3-4(2), 현악합주3-4(2), 관현악 문헌1(2), 컴퓨터음악3-4(4), 현대 음악론1-2(4), 예술가곡 연구1-2(4), 지휘법1-2(4), 전공 대위법4(2)
	4	전공실기7-8(2), 영어디션1(2), 합창8(2), 합주7-8(4), 피아노 교수법2(2)	국악개론1-2(4), 대위법2(2), 종교곡 및 오라토리오(1), 합창7(2), 피아노 교수법1(2)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은 전공기초 과목으로 조성음악의 화성학 1-2 과목과 각 전공의 기본 테크닉의 훈련을 위한 과목들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공필수 과목으로는 전공에 따라 조성음악 관련 수업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현·타악 전공의 경우, 전공기초의 화성학 1-2만 조성음악의 기초로 지정하고 있으며, 성악과는 여기에 화성학 3-4와 음악분석 1을 전공 필수 과목에 더하고 있다. 그리고 피아노과는 전공기초에 화성학 3-4, 음악분석 1-2를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각 전공별 요구하는 조성음악의 이해 정도에 차등을 두어 전공 필수 과목들을 다 다르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각 전공별로 전공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서 20세

기 이후 작품들과 관련된 수업들은 작곡과에서 전공 선택 과목들로 현대음악 분석, 동시대 작곡기법이 유일하다. 이에 작곡 전공 이외의 실기 전공학생들은 학부 기간 동안 모두 조성음악과 관련된 수업만 교육받고, 20세기 이후의 작품과 관련된 분석, 이해를 위한 수업은 전혀 받지 않고 졸업하게 된다.

(표9)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기초 (학점)	전공필수(학점)	전공선택(학점)
관현•타악	관악합주1-2(2), 현악합주1-2(2), 화성학1-2(4), 오케스트라 레퍼토리1-2(2),	오케스트라1-2,8(4), 현악합주3-6(4), 관악합주 3-6(4)	제2실기1-2(2), 오케스트라3-7(8), 현악앙상블 및 관악앙상블1-4(4), 지휘법1-2(2), 음악교재 연구 및 지도법(2), 현악합주7-8(2), 관악합주7-8(2), 오케스트라 레퍼토리3-4(2)
성악	이태리어디션 및 가곡연구1-2(2), 합창1-2(2), 화성학1-2(4),	솔페이즈3-4(2), 합창3-4(2), 화성학3-4(4), 음악분석1(2)	독일어디션 및 가곡연구 1-2(2), 한국가곡(1), 성악반주 1-4(8), 합창 5-8(4), 성악문헌1-2(4), 성악앙상블1-2(2), 프랑스어디션 및 가곡연구1-2(2), 음악분석2(2), 통합 예술 교육프로그램 이해(2), 영미디션 및 가곡연구1-2(2), 오페라 워크숍1-2(2)
작곡	기능화성학1-2(4), 대위법1-2(4)	형식론 및 분석1-2(4), 현대화성 및 음렬기법1-2(4), 관현악법1(2)	서양음악사3-4(4), 음향학 및 전자음악(2), 관현악법2-4(6), 현대음악분석(2), 음악과논리(3), 동시대 작곡기법(2), 컴퓨터음악(2)
피아노	화성학1-2(4), 건반화성1-2(2), 피아노문헌-바로크(2 )	반주법1-2(2), 화성학3-4(4), 분석과 연주실제(2), 음악분석1-2(4)	피아노문헌-고전(2), 음악교육론(2), 피아노문헌-낭만(2), 대위법3-4(4), 피아노를 위한 작법(2), 피아노문헌-근현대(2), 실내악1-2(4), 피아노교수법1-2(2), 총보독법(2)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점검해보았다. 각 학교별 커리큘럼 조사·분석에서 언급하였지만, 작곡과를 제외한 실기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에서 모든 학교들은 조성음악과 관련된 과목들이 전공기초, 전공필수로 들어있었고, 조성음악에서 벗어나 20세기 이후 작품들의 조망을 위한 기초 훈련 과목을 전공기초나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유

일하였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저 전공 선택 과목으로 1-2개 정도 선택할 수 있게 20세기 이후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고 있을 뿐, 사실 20세기 이후 음악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깊이 있는 분석·해석을 위한 커리큘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론에서도 필자가 언급했듯이, 20세기 이후의 작품 분석·해석을 위해서는 분석자의 통찰력 있는 사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20세기 이후 작품도 시기 마다 음악적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작품마다 지닌 독특한 음악적 양식을 파악·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하고 이러한 교육은 음악 전공자를 양성하는 음악대학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음악대학에서는 20-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조성음악의 분석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에서조차 무조성 음악, 음렬음악, 현대음악 등과 관련된 기본적 어법에 대한 조망도 불가하도록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었던 사실은 진지하게 21세기에 맞는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재고와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음악전공자들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정상자리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성과로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이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이 과연 21세기 현 시점에 맞는 커리큘럼인지, 혹은 편협적 교육과정 체계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균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혁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3. 미국, 독일 음악대학 커리큘럼 분석

제 3장에서는 미국과 독일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수준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필자가 선택한 미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대학들은 미국의 예일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로체스터 대학교(이스트만 스쿨), 줄리어드 음악학교와 독일의 하노버 국립 음악대학,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악대학, 뮌헨 국립 음악대학이다.

(표10)은 예일 대학교 음악대학의 수준별 개설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예일 대학교는 2018년 1학년 세미나 주제를 ‘소음’으로 정하여 요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음악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고민’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실기와 정통 서양음악에만 집중하는 편협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

를 가지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지닌 음악가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첫걸음으로 보인다.<sup>13)</sup> 예일 대학교는 수준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단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 기초과정에서는 조성음악과 관련된 기초 수업으로 음악의 기초이론을 개설하고 있으며, 서양음악사 수업과 함께 락 음악의 역사, 종족음악학, 미국 뮤지컬 음악의 역사 등 조성음악에만 한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1학년 시기부터 접하고 다각적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 중급과정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중급단계에서 조성음악과 관련된 수업으로 조성음악분석 입문, 뮤지션십 입문, 음악사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중급과정에서는 가블란 전통음악 앙상블,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음악, 현대음악, 세계음악, 카바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과 뮤지컬 등 조성음악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세계 음악, 다양한 장르, 그리고 특정 분야에 유명한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고급과정에서는 19세기 음악, 20세기 음악, 고급 뮤지션십(20세기음악), 재즈, 영화음악 입문, 러시아 오페라, 음악·서비스·사회와 같이 조성음악에서 벗어난 무조음악, 현대음악, 음악이 함께 쓰이는 다른 장르, 사회에서 음악의 실용·효용성에 대해 고심할 수 있는 수업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또한 중국 오페라, 음악비평, 라디오, 대중음악에서의 여성성 등 음악의 영역을 21세기 현재 ‘사회적 음악 현상’에 주목하여 음악대학에서 다루는 수업 주제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있다.

13)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도 2-3년 전부터 소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중점연구 사업으로 소리, 공간, 이동·‘사이공간’의 소리환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모빌리티(이동성)를 고려한 현대의 소리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표10)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수준별 이수 과목

1학년 세미나	소음
기초과정	음악의 기초이론, 서양음악사, 청음, 락 음악의 역사, 종족음악학, 미국 뮤지컬 음악의 역사
중급과정 I	조성음악분석 입문1, 조성음악분석 입문2, 뮤지션쉽 입문1 (시창, 청음, 건반화성, 화성), 뮤지션쉽 입문2 (시창, 청음, 건반화성, 화성), 음악 테크놀로지 입문, 뮤지션쉽 중급 (고급 시창•청음, 건반화성, 화성)
중급과정 II	실내악 연주 1-2, 성악음악 연주, 뮤지컬 연주 1-2, 뮤지컬 작곡 1-2, 가블란 전통음악 앙상블, 르네상스 음악 연주, 작곡 세미나 1-2, 지휘법 입문, 지휘법 중급, 초기 오페라 분석 및 연주, 전공실기
중급과정 III	유럽 교회, 궁정 음악(1600-1800) 유럽 음악의 전통 (1800-1950)
중급과정 IV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음악•현대 음악, 세계음악, 카바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과 뮤지컬
고급과정 I	19세기 음악, 20세기 음악, 관현악법 고급 뮤지션쉽(20세기음악)
고급과정 II	작곡 세미나 3-4, 컴퓨터 음악 입문, 컴퓨터 음악 중급 모차르트 실내악 : 분석 및 연주, 즉흥 재즈 전공실기 고급
고급과정 III	영화음악 입문, 음악, 서비스, 그리고 사회, 러시아 오페라
고급과정 IV	중국 오페라, 음악 비평, 라디오, 대중음악에서의 여성성
개인연구 과정 세미나 프로젝트	개인 연구, 전공실기, 작곡 세미나, 뮤지컬 세미나, 논문지도

(표11)은 인디애나 대학교의 제이콥스 음악대학 학부 커리큘럼을 정리한 것이다. 제이콥스 음악대학은 음악이론에 대한 교육이 매우 체계적인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음악1-4, 음악이론 및 문헌1-5, 음악이론 관련 주제 등의 수업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수 학점을 설정하여 실기전공 학생들에게 작품의 깊이 있는 분석·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론 관련 주제 수업은 담당 교수의 특별 전공에 따라 수업 내용이 구체화되며, 보통 20, 21세기 음악까지 이론적 접근, 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깊이 있는 수업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음악 작품만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수업의 수준에서 벗어나 음악과 사상, 음악교육론, 음악이론과 관련 주제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표11) 인디애나대학교 제이콥스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전공 수업(학점)
관현악	전공 실내악1-8(16), 관현악합주(2), 실내악1-4(4), 연주(한학기에 6학점이상) 부전공 피아노(2), 기초음악1-4(4), 음악이론 및 문헌1-5(15), 음악 교육론(2), 관●현악페다고지(3), 음악사1-2(8), 작곡가●장르(3), 음악이론 관련 주제(3), 고급 청음●건반화성(3), 대위법(3), 조성음악분석(3), 음악과 사상(3), 음악교육(3)
성악	전공 실내악1-8(16), 전공연주1-4(12), 부전공 건반악기(2), 기초음악1-4(4), 음악이론 및 문헌1-5(15), 음악사1-2(8), 성악문헌1-2(6), 영어덕션(1), 이태리덕션(1), 독일어덕션(1), 불어덕션(1), 음악교육론(2), 성악페다고지(3)
작곡	전공 실내악1-8(16), 작곡 전공실기1-8(24), 부전공 악기실기(2), 400레벨 대학원 연주 관련 수업(2), 부전공 건반악기(2), 기초음악1-4(4), 음악이론 및 문헌1-5(3), 음악사1-2(4), 작곡가●장르(3), 음악 이론 관련 주제(3), 고급 청음●건반화성(3), 대위법(3), 조성음악 분석(3), 음악과 사상(3), 음악교육(3), 사보 프로그램(1), 관현악법1-2(4), 고급 관현악법1-2(4), 전자음악1-2(4)
피아노	전공 실내악1-8(16), 전공연주1-4(12), 기초음악1-4(1), 음악이론 및 문헌1-5(15), 기초음악1-4(4), 음악사1-2(8), 작곡가●장르(3), 음악이론관련 주제(3), 고급 청음●건반화성(3), 대위법(3), 조성음악 분석(3), 음악과 사상(3), 음악교육(3), 피아노페다고지(2), 피아노반주1-4(4)

(표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리어드 음악 학교의 커리큘럼은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기 중심의 학교이지만 전공실기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여 진정한 음악가로서 소양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실기 전공 학생들에게 1학년에는 줄리어드 콜로키움, 예술가 정신의 본질이라는 수업을 통해 기술적·이론적 터득에 앞서 바른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질을 점검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전 실기 전공 학생들에게 음악 이론을 전 학년에 걸쳐 수강하게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론 수업의 내용과 음악사 수업 시기를 일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이론 수업이 조성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성음악(온음계적 화음)에서 출발하여 2학년 시기에는 반음계적 화성·분석 수업과 조성음악의 붕괴 시기와 관련된 음악이론을, 3학년에는 20세기 이후 음악 이론 수업과 고급 음악이론 수업을, 4학년에는 보다 심화된 고급음악이론 수업을 개설한다. 학부 4년 과정을 통해, 조성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이론 수업을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이론, 음악사 수업의 연계 설계와 함께 음악이 생성되고 발달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음악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인간윤리학, 사회·정치·문화 수업, 2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시민권·예술·정치, 예술 관련 수업 등은 음악실기 전공생들이 전공 악기의 테크닉적 기술만으로

는 진정한 연주를 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작품의 깊은 연구, 작품과 연관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바른 분석과 해석 그리고 본인만의 독창적 해석 능력을 지닌 연주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목표가 반영된 커리큘럼이라 판단된다.

예전부터 음악대학의 위상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의 이스트만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표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준별로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스트만 음악대학의 기초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음악이론 관련 수업을 살펴보면, 기초 과정에서 음악기초통합이론, 음악이론입문을 시작으로 온음계적 화음, 반음계적 변화화음, 전조, 20세기 음악, 음고류 집합이론, 변형이론, 음렬기법까지 조성음악의 음악어법과 20세기 화성어법까지 모두를 기본 이론 수업에서 모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급과정까지 이수한 후에는 고급과정에서 음악이론 세미나: 대중음악, 대중음악의 형식, 음악분석: 뮤지컬, 음악분석: 할리우드 뮤지컬, 록 음악 세미나, 음악분석: 비틀즈와 같이 현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심도 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이론수업의 설계와 함께 이스트만 음악대학은 조성음악·무조음악의 정통 클래식 음악에만 국한된 수업 개설이 아닌 다양한 음악, 다양한 이국적 악기, 현재 사회적 음악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수업 개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세계음악, 재즈의 역사, 롤링스톤과 블루스 록, 비틀즈·브리티시 인베이전·사이키델리아, 1970년대 록 음악, 스타 메이커, 뮤지컬 워크숍, 손드하임·현대 뮤지컬, 미국 뮤지컬, 유대교·음악, 종교, 힙합문화, 가스펠합창, 재즈, 엠비라(MBIRA) 실내악 등의 수업들은 국가를 초월, 종교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회·종교 음악을 수업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1세기 현대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음악가들, 장르들에 초점을 맞춰 음악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간접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산업화에 발맞춰 음악대학에서도 다양한 기술 발달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샘플링의 역사, 레코딩의 예술·기술, 청음과 오디오, 사운드 디자인, 시각 미디어를 위한 오디오, 라우드스피커 디자인, 소리학 등이다. 이와 함께 음악과 사상, 음악·민족지학·HIV/AIDS, 음악과 종교와 같이 음악과 다른 장르의 융합 수업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표12) 줄리어드 음악대학 전공별 이수 과목

전공	학년	전공 수업(학점)
관현악	1 (40-44)	줄리어드 콜로키움(1), 예술가 정신의 본질(1), 전공실기(10), 전공심사(0), 오케스트라 연주(4), 오케스트라 레퍼토리(4), 실내악(4), 청음(4), 피아노클래스1(1), 음악이론1: 온음계적 화성(3), 음악이론2: 형식론(3), 음악사: 고대-1700(3), 인간윤리학(3), 사회·정치·문화(3)
	2 (42-46)	전공실기(10), 전공심사(0), 오케스트라 연주(4), 오케스트라 레퍼토리(4), 실내악(4), 청음2(4), 피아노클래스2(1), 음악이론3: 반음계적 화성·분석(3), 음악이론4: 조성음악의 붕괴(3), 음악사: 1700-1850(3), 음악사: 1850-현대(3), 시민권·예술·정치(3), 예술 관련 분야(3)
	3 (36-40)	전공실기(10), 전공심사(0), 오케스트라(4), 실내악(4), 음악이론5: 20세기를 넘어서, 고급 음악이론(3), 고급 음악사(3), 예술 관련 분야(6)
	4 (33-37)	전공실기(10), 전공 세미나(2), 졸업심사(0), 리사이틀(1), 오케스트라(4), 실내악(4), 고급음악이론(3), 고급음악사(3), 예술 관련 분야(6)
성악	1 (47)	줄리어드 콜로키움(1), 예술가 정신의 본질(1), 전공실기, 전공심사(0), 청음1(4), 피아노클래스1(1), 음악이론1: 온음계적 화성(3), 음악이론2: 형식론(3), 음악사: 고대-1700(3), 인간윤리학(3), 파닉스(1), 이태리디션(4), 성악연주입문(1), 텍스트와 성악가(1), 연기법1(2), 연기1(0), 오페라 코러스(0), 인간윤리학(3), 사회·정치·문화(3), 이태리어1(6)
	2 (46)	전공실기, 청음2(4), 피아노클래스3(1), 음악이론3: 반음계적 화성·분석(3), 음악이론4: 조성음악의 붕괴(3), 음악사: 1700-1850(3), 음악사: 1850-현대(3), 영어디션(2), 독일어디션(4), 영·미국 가곡문헌(2), 연기법2(2), 오페라 연구(2), 연기2(0), 오페라 코러스(0), 시민권, 예술, 정치(3), 예술 관련 분야(3)
	3 (40)	전공실기, 청음3(4), 음악이론5: 20세기를 넘어서(3), 불어디션(4), 이태리 성악문헌(4), 연기3(2), 오페라 연구(4), 오페라 코러스(0), 언어 관련 수업(6)
	4 (36)	전공실기, 성악 세미나(2), 음악사 고급(6), 독일 성악문헌(4), 프랑스 성악문헌(4), 연주(2), 성악의 역사(1), 연기4(2), 오페라 연구(4), 오페라 코러스(0),
작곡	1 (37)	줄리어드 콜로키움(1), 예술가 정신의 본질(1), 작곡 전공 실기, 전공심사(0), 작곡가 포럼(2), 작곡실습(1), 청음1(4), 피아노 클래스1(1), 음악이론1: 음악형식과 구조(4), 음악이론2: 반음계적화성·분석1(4), 음악사: 고대-1700(3), 인간윤리학(3), 사회,정치,문화(3)
	2 (39)	전공실기, 전공심사(0), 작곡가 포럼(2), 작곡실습(1), 청음2(4), 피아노 클래스3(1), 음악이론3: 반음계적화성·분석2(4), 음악이론4: 대위법·음악분석방법론(4), 음악사: 1700-1850(3), 음악사: 1850-현대(3), 시민권, 예술, 정치(3), 예술 관련 분야(3)
	3 (45)	전공실기, 전공심사(0), 작곡가 포럼(2), 작곡실습(1), 청음3(4), 음악이론5: 20세기를 넘어서(4), 고급 음악이론(3), 고급 음악사(6), 고급 대위법(6), 오케스트라 지휘(4), 예술 관련 분야(6)
	4 (39)	전공실기, 졸업연주심사(1), 작곡가포럼(2), 작곡실습(1), 청음4(4), 고급 음악사(3), 고급 화성연구(6), 관현악법(6), 예술 관련 분야(6)
피아노	1 (32)	줄리어드 콜로키움(1), 예술가 정신의 본질(1), 전공실기, 전공심사(0), 피아노 주제(1), 피아노 연주 클래스1(1), 청음1(4), 음악이론1: 온음계적 화성(3), 음악이론2: 형식론(3), 음악사: 고대-1700(3), 인간윤리학(3), 사회·정치·문화(3)

2 (42)	전공실기, 전공심사(0), 피아노 연주 클래스2(2), 청음2(4), 음악이론3: 반음계적 화성•분석(3), 음악이론4: 조성음악의 붕괴(3), 음악사: 1700-1850(3), 음악사: 1850-현대(3), 건반기술1(4), 피아노문헌1(4), 시민권, 예술, 정치(3), 예술 분야 관련(3)
3 (42)	전공실기, 전공심사(0), 피아노 연주 클래스3(2), 실내악(4), 음악이론5: 20세기를 넘어서(3), 고급 음악이론(3), 고급 음악사(6), 건반기술2(2), 고급 건반기술(2), 피아노문헌2(4), 예술 관련 분야(6)
4 (35)	피아노전공실기, 졸업연주 심사(0), 리사이틀(1), 피아노과 세미나(2), 피아노 연주 클래스4(2), 실내악(4), 고급 음악이론(3), 고급 음악사(3), 피아노문헌3(4), 예술 관련 분야(6)

(표13) 로체스터대학교의 이스트만 음악대학 수준별 이수 과목

기초과정	음악감상, 음악의 구성요소, 지휘법, 음악의 일반적이해, Carillon 타악기 실기 레슨, 서양음악사, 음악기초 통합이론, 음악이론 입문, 음악이론1, 음악이론2, 음악 통합이론2: 시창·청음·온음계적 화성, 음악 통합이론3: 변화화음·온음계적 전조, 음악 통합이론4: 반음계적 화성·청음분석, 건반화성1, 건반화성2, 부전공 실기(피아노), 심포니•지휘, 세계음악, 재즈의 역사1, 재즈의 역사2, 흑인음악, 음악 산업의 변천, 락 음악의 역사, 오페라, 블루스, 여성과 음악, 롤링스톤과 블루스 록, 비틀즈•브리티시 인베이전•사이키델리아, 1970대 록음악, 스타메이커, 뮤지컬 워크숍, 스타일·장르: 음악사 입문, 손드하임·현대 뮤지컬, 미국 뮤지컬, 고전음악, 반 종교 개혁운동 워크숍, 지휘법 입문, 유대교·음악, 종교, 힙합 문화, 오디오 음악·기술 입문, 음악·시·노래, 대중 팝음악, 베토벤과 그의 음악세계, GUNIEA 음악, 앨범 컨셉: 팝 예술, 관현악법, 소리와 감각, 여성 합창, 남성 합창, 실내악, 오케스트라 연주, 관합주, 재즈 실내악, 재즈 콤보, 가스펠 합창, 가믈란(GAMELAN)양상블, 콘서트피아노,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음악과 사상, 가스펠 연주 워크숍, 엠비라(MBIRA)실내악, 서아프리카 드럼밍 입문, 서아프리카 드럼밍 중급, 금관 실내악, 타악 실내악, 록 레퍼토리 양상블,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입문, 샘플링의 역사, 레코딩의 예술·기술, 청음과 오디오, 사운드 디자인, 시각 미디어를 위한 오디오
중급과정 I	재즈 이론과 즉흥연주1, 재즈 이론과 즉흥연주2, SBA&Her Music, 카리용(CARILLON), 새로운 세계의 음악: 1492-1800, 라우드 스피커 디자인, Ngoma drum, 음악이론3: 형식·반음계적화성•전조, 음악이론4: 20세기음악·음고류 집합이론·변형이론·음열기법, 음악이론 세미나: 대중음악 분석, 대중음악의 형식, 음악과종교, 서양음악사: ~1600, 서양음악사: 1600-1750, 서양음악사: 1750-1850, 서양음악사: 1850-현대, 노예 내러티브, 음악분석: 뮤지컬, 고급 뮤지컬 워크숍, 음악분석: 비틀즈, 1970대 록음악, 음악•민족지학•HIV/AIDS, 소리학, 소리의 혁명, 음악분석: 할리우드 뮤지컬, GUINEA음악
중급과정 II	개별 연구수업, 시니어 프로젝트, 인턴십, 기초 재즈이론•즉흥연주
고급과정	엔고마(NGOMA): 드럼과 춤, 재즈의 역사1, 록음악 세미나, 음악분석: 뮤지컬, 음악분석: 비틀즈, 고급 록음악, 음악·민족지학·HIV/AIDS, 서아프리카 드럼, 음악분석: 할리우드, 박사연구

(표14), (표15), (표16)은 독일의 국립 음악대학인 하노버 음악대학,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뮌헨 음악대학의 개설과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독일 국립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제시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음악대학들과는 매우 상이하게 기본 수업과정만 커리큘럼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 학교 모두 음악이론, 청음, 건반화성, 음악학, 음악생리학, 음향학, 음악교육,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문헌의 음악과 관련된 기본 수업으로 개설하고 있다. 독일의 음악대학들은 조성음악의 기본 원리 탐구와 음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학문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성음악에서 벗어나 20세기, 21세기 음악과 관련된 수업으로 명명하여 이수과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통 클래식 음악에서 벗어난 다른 장르에 대한 수업 개설도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일 음악대학의 정통적 음악교육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지도교수에 따라 전공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고, 지도교수 아래에서 수학하는 도제식 교육 시스템에 따른 커리큘럼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표14) 독일, 하노버 국립 음악대학 개설과목

전공	전공 수업
관현악	전공실기, 오케스트라연주, 실내악음악, 르네상스 음악, 신음악, 피아노앙상블, 합창, 생리학•심리학 훈련, Feldenkrais, Alexander 기술, 음악이론, 청음, 건반화성, 리듬 청음, 음악학, 음악생리학, 음악연구, 음악교육, 고급 음악이론, 지휘, 숫자저음이론, 키티누오베이스 연주, 음악분석
성악	성악 전공실기, 레퍼토리 연구, 시대별·장르별 작품 연구, 연기, 성악앙상블, 스피치, 이태리디션, 다른나라 디션,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학, 연주, 성악 페다고지, 오페라 앙상블, 합창
작곡	전공실기, 악기론, 전자음악, 음악이론, 작곡 세미나, 워크숍, 리사이틀
피아노	피아노 전공실기, 음악이론, 음악학, 음악교육, 음악생리학 연구, 피아노 교수법, 피아노 문헌, 지휘법, 제즈

(표15)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악대학 개설과목

전공	전공 수업
관현악	전공실기, 음악문헌, 기초음악이론, 음악사, 연주, 연주기술·신음악 표기법, 앙상블, 연주회 프로젝트, 음악 페다고지, 음악연구 방법론, 시창, 청음, 화성청음, 대위법, 음악이론1-4, 음악학1-2, 음악경영 등
성악	전공실기, 반주앙상블, 몸과 호흡 훈련, 이태리디션, 합창, 청음, 화성청음, 시창1-2, 대위법, 음악이론1-4, 음악학1-2, 음악경영, 피아노, 음악철학과 미학 등
작곡	전공실기, 전자음악, 전자음악작곡프로그램, 신음악의 철학과 미학, 전자음악 해석 및 분석, 청음, 화성청음, 시창, 음악이론1-2, 악기론, 관현악법, 음악이론세미나, 대위법, 음악학1-2, 피아노, 음악경영 등
피아노	전공실기, 음악문헌, 기초음악이론, 음악사, 연주, 연주기술·신음악 표기법, 앙상블, 연주회 프로젝트, 음악페다고지, 음악연구방법론, 시창, 청음, 화성청음, 대위법, 음악이론1-4, 음악학1-2, 음악경영 등

(표16)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개설과목

전공	전공 수업
관현악	전공실기, 특정작품연구(주요논제, 전문연주자훈련, 앙상블), 신음악, 합주, 합창, 피아노, 음악이론, 시창, 청음, 형식론, 악기론, 음악사, 오케스트라음악사, 음악심리학 기초, 음악학, 음악생리학, 음악교육, 동기부여심리학 등
성악	전공실기, 특정작품연구(주요논제, 반주앙상블, 음성디자인, 음성학, 음악생리학, 음악기초, 발성법, 오디션 교육 등), 레퍼토리 연구(가곡, 인물연구, 앙상블연주 호흡 연구), 피아노연주법, 이태리디션, 이론과 실습, 음악이론, 청음, 시창, 형식론, 음악사, 음악학, 프로젝트 연구●역할 설계, 오페라 합창, 음악심리학, 음악생리학, 음악교육 등
작곡	전공실기, 특정작품 연구(주요논제, 연구, 음악이론, 음악형식, 악기론, 전자음악 등), 작곡 콜로키움, 합창, 시창, 청음, 음악철학과 미학, 악기론, 음악사, 음향학, 합창지휘, 작품연주 등
피아노	전공실기, 특정작품 연구(주요논제, 연구, 실내악, 음악문헌 등), 연주프로젝트, 음악이론, 합창, 청음, 시창, 형식론, 악기론, 음악사, 피아노음악문헌, 음악심리학, 음악철학과 미학, 음악교육, 음악동기부여심리학 등

## 4. 음악대학 커리큘럼 제언

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제 2장에서 국내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세계 우수한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의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업들을 제공하며 21세기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필자가 조사한 한국 소재 모든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에서 전공 기초 혹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조성음악 이후의 음악과 관련된 수업들을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몇 학교에서 전공 선택으로 20세기 음악이라는 과목명 하에 20세기 이후의 모든 작품들을 아우르는 정도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필자가 앞서 밝힌 바 있듯이, 무조음악, 음렬음악, 현대음악 등 조성에서 벗어난 음악에 대한 작품 분석·해석의 역량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음악대학에서 20세기 이후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전혀 개설하지 않고 20-30년 전 커리큘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음악대학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대적인 커리큘럼의 수정이 필요한 때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이에 필자는 제 3장에서 조사한 미국의 우수 음악대학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21세기 한국 음악대학 실정에 맞게 전공필수, 전공선택 커리큘럼을 다음의 (표17)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한 커리큘럼에서 1학년 1학기 필수 과목 중에서도 가장 처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신입생 세미나’이다. 음악가로서 배움의 첫 출발점에 세미나를 통해 필자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연주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정한 예술가란,” “살아있는 음악·연주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음악의 본질, 연주자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음악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고자 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바른 연주자로 성장할지, 어떻게 음악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연주할지, 스스로 음악에 대한 배움의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며, 학부 과정, 전공과목 선택에 있어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이 세미나의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본인 전공에만 집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4년의 학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대한 다각적·거시적 조망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전공필수 과정으로 개설된 음악이론 1-9는 조성음악 분석법에서부터 현대음악 분석까지 아우르도록 설계하여 4년의 학부 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조성음악 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현대음악까지 접하고, 분석·해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악이론 1~9의 개설이 필수 교과목인 음악사 학습 내용과 연계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분석 실습, 연주 실습 등도 연계되도록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론 수업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학년 1학기과 2학기에는 조성음악의 어법 중 온음계적 화성에 대한 수업을, 2학년 때에는 반음계적인 화성과 후기 낭만주의의 화성 어법을 학습한다. 2년 동안 조성음악에 대한 기본 어법을 공부한 후, 3학년부터는 조성음악의 구조 분석을

위한 다각적 방법론의 고찰과 함께 형식론을 공부할 것이며, 이와 함께, 19세기 조성음악의 붕괴 시기를 시작으로 점차 조성음악에서 벗어나는 어법들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한다. 이 때, 20세기 무조음악 분석을 위한 방법론 학습으로 음고류 집합이론(Pitch Class Set Theory)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알렌 포르테(Allen Forte, 1926-2014)의 집합이론은 굉장히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한 무조성 음악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음고류들 사이 음향 관계를 집중 조망·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무조음악 내 음고류 관계들의 분석을 통해 작품 전체에 흘러가는 주된 음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된 음향의 진행 방향, 부분 부분의 관련성, 유사성 등의 고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한 무조음악의 분석은 작품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 예술적 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며, 이러한 발견은 결국 작품의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여 작곡가가 작품 안에 담은 음악적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연주를 통해 표현 가능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음렬음악 학습을 위한 수업을 배치하였다. 이는 쇤베르크가 고안해 낸 기법으로, 1920년 경 부터 시작되어 쇤베르크의 제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다른 많은 작곡들에 의해 변형·유지되며 지금까지 그 쓰임이 이어지고 있다. 음렬음악 분석을 위해서는 무조음악과는 또 다른 '기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작품에 내재된 음렬 움직임들을 조망할 수 있기에 음악이론 7로 수업을 개설하였다.

4학년 1학기에는 현대 음악 수업을 개설하여 현대 음악의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4학년 2학기에는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대음악 분석 세미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융합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예술 장르에서 음악의 위치는 어디이고, 어떻게 해석하여 연주하는 것이 이상적일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담고자 한다.

또한 전공 선택에서 체계적인 이론수업의 설계와 함께 조성음악·무조음악·현대음악의 정통 클래식 음악 흐름에만 국한되지 않게, 대중음악, 뮤지컬음악, 영화음악, 재즈화성학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고찰이 가능토록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와 함께 음악의 흐름을 조망하는 음악과 사회, 음악과 문화 등과 같은 수업, 그리고 예술 경영, 음악과 법 등의 수업 개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21세기 학계의 흐름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수업들을 개설·설계하였다.

(표17) 음악대학 전공필수, 전공선택 커리큘럼

학년	1학기		2학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1	신입생 세미나, 음악이론1: 온음계적 화성1, 음악사1:고대-1600, 시창·청음 1	음악소프트웨어 실습1, 전자음악, 음악과 종교1, 대중음악 입문, 영화음악 입문, 음악비평1, 고급대위법1, 음악과 사회1, 뮤지컬 음악1, 락 음악, 세계음악1, 음향학1, 음악심리학1 내러티브 분석, 예술 경영, 현대음악 감상 및 비평, 음악학개론, 국악개론, 전공글쓰기 입문	음악이론2: 온음계적 화성2, 음악사2: 1600-1750, 시창·청음 2, 바로크음악 연주법	음악소프트웨어 실습2, 음악과 종교2, 대중음악 분석, 영화음악 분석, 음악비평2, 고급대위법2, 음악과 사회2, 뮤지컬 음악2, 세계음악2, 현대 국악, 음향학2, 음악심리학2, 음악과 법, 현대음악 연주기법, 전공 글쓰기 고급, 음악교육학, 음악치료학, 인벤션과 푸가, 재즈 화성학, 음악과 미술
2	음악이론3: 반음계적 화성, 음악사3: 1750-1820, 대위법 입문, 시창·청음 3, 건반화성1		음악이론4: 조성음악의 붕괴, 음악사4: 1820-1910, 대위법 고급, 시창·청음 4, 건반화성2	
3	음악이론5: 조성음악의 구조분석(형식), 음악이론6: 무조음악(음고류집합이론), 전공문헌1		음악이론7: 쇤베르크와 음렬음악, 전공문헌2	
4	음악이론8: 현대음악, 현대음악 연주기법		음악이론9: 다양한 장르의 현대음악 분석 세미나	

## 5. 나가면서

현재 한국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20-30년 전의 커리큘럼과 비교하여 별 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성음악을 위한 화성법, 대위법, 구조분석에 대한 수업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조성 음악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는 한, 두 과목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련 수업이 개설도 안 되어 있어 무조음악, 20세기, 현대음악에 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음악대학들도 무수히 많은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필자는 국내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국외의 우수한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며 21세기 한국 음악대학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 제안하였다.

물론, 음악대학 커리큘럼을 하루아침에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커리큘럼의 대대적 수정,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본부의 재정적 뒷받침과 음악 대학 내 교육 방침에 대한 합의, 20세기 이후 음악 관련 이론 교재 개발, 적합한 담당 교수 채용 등 매우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실, 지금까지 20-30년 전의 음악대학 커리큘럼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제적 제약이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된 고민과 연구를 통해 과연 21세기 현 시점에서 음악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교육하여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며 그 정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그 논의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필자가 조사한 2018년 한국 음악대학의 커리큘럼 자료들과 외국의 우수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 자료들은 음악대학 커리큘럼 분석 연구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국외 음악대학들의 수업 개설 현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현재의 사회·음악계의 흐름을 수업에 반영하여 커리큘럼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음악대학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확립은 결국 음악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조성음악에만 치우친 편협한 교육이 아닌 20세기, 21세기,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균형된 ‘음악 교육’으로 제공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조성 이후 시기의 작품 또한 ‘알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범주를 넓힐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또한,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는 결국 음악계의 음악회 레퍼토리 확대, 청자들의 조성에서 벗어난 음악의 청취 기회 확대 등으로 연결되어 우리 음악전공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적으로 분명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 확신한다.

## 검색어

무조음악(Atonal Music), 무조음악 교육(Curriculum for Atonal Music), 음악대학 교육과정(Music College Curriculum), 음악이론 교육과정(Music Theory Curriculum)

## 참고문헌

- 김예진. “음악지각인지 연구 고찰을 통한 무조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공학』 26 (2016): 135-149.
- 이석원. 『음악인지과학』. 서울: 심설당, 2013.
-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여초, 2014.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2009.
- Bright, William. *Language and Music: Areas for Cooperation*. *Ethnomusicology* 7, 1963.
- Collingwood, Robin. *The Principles of A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Cross, Ian. “Music Analysis and Music Perception.” *Music Analysis* 17/1 (1998): 3-20.
- Krumhansl, Carol. “Music Psychology and Music theory: Problems and Prospects.” *Music Theory Spectrum* 17/1 (1995): 53-80.
- Kunst, Jos. “Music and Communication: On Musicology as a Behavioral Science.” *Interface* 7 (1978): 189-204.
- \_\_\_\_\_. “Language and Music as Communication: A Discussion.” *Music Educators Journal* 65/6 (1979): 68-71.
- Lynch, Eilers, Oller, and Richard Urbano. “Innateness, Experience, and Music Perception.” *Psychological Science* 1/4 (1990): 272-276.
- Meyer, Leonard.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 \_\_\_\_\_. *Explaining Music: Essays and Explor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Narmour, Eugene. *Cognitive Bases of Musical Commun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1.
- Rosner, Brian & Meyer, Leonard. *Melodic Processes and the Perception of Music*. in D. Deutsch (Ed.). *The Psychology of Music*. NY: Academic Press, 1982.
- Seashore, Carl. *Psychology of Music*. NY: Dover Publications, 1938.

## 〈인터넷 자료〉

<http://music.knu.ac.kr>,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music.khu.ac.kr/contents/bbs>,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www.sas.rochester.edu/mur/undergraduate/courses.html>,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website.musikhochschule-muenchen.de/de/images/PDFs/studium/Studentafeln/Bachelor/Music>,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music.pusan.ac.kr/music/index.do>,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ugang.snu.ac.kr>,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portal.uos.ac.kr>,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ysweb.yonsei.ac.kr:8888/curri120601/curri\\_new.jsp#top](http://ysweb.yonsei.ac.kr:8888/curri120601/curri_new.jsp#top),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catalog.yale.edu/ycps/subjects-of-instruction/music/#text>,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music.indiana.edu/degrees/undergraduate/requirements>,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arts.jbnu.ac.kr/2016/inner.php?sMenu=C4200>,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www.juilliard.edu/music/vocal-arts/vocal-arts-bachelor-music>,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art.cnu.ac.kr/academy.brdr?shell=/index,shell:80>,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www.mh-freiburg.de/fileadmin/Downloads/BachelorMusik/Studienplaene>,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nuri.karts.ac.kr/nuri/Menu/Default.do>, 2018년 12월 30일 접속.

<https://www.hmtm-hannover.de/en/application/programmes-of-study/musical-performance-bachelor-of-music>, 2018년 12월 30일 접속.

## An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Music College Curriculum: Focused on the Atonal Music Education

Yeajin Kim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problem of music college curriculum in Korea. For analysis of music colleges curriculums, I searched several music colleges' curriculum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yunghee University, University of Seoul, Chungnam University, Joenbuk University, Kyungbuk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Through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se music college curriculums, I found that those universities still focus on the tonal music education except atonal music.

However, in case of the curriculums of music college in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totally different curriculums from our curriculums. They give many chances to students to take various subjects relating to 20, 21 century music. In addition, it also opens up clas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music to enable students to have deep interpretive ability of music. During four-year undergraduate program, it focused not only on tonal music theory but also on music theory and music history including the 20th and 21st century music. Also, I was able to confirm that there are many classes to study traditional Western music as well as contemporary music and popular genre.

Through the curriculum analysis study of these excellent music colleges, I developed and proposed more ideal curriculum suitable for Korean Music College in the 21st century. As required courses, the music theory 1-9 classes are designed to cover from traditional tonal music analysis to contemporary music analysis through the four-year undergraduate course. Especially, it is designed to link the music theory class and the contents of the music history class. With this theoretical learning, the analysis course and the performance practice class are associated in the curriculum that I suggested.

## 한국 음악대학 커리큘럼 분석 및 제언 - 20세기 이후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

김예진

현재 한국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20-30년 전의 커리큘럼과 비교하여 별 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성음악을 위한 화성법, 대위법, 구조분석에 대한 수업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조성 음악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는 한, 두 과목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련 수업이 개설도 안 되어 있어 무조음악에 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음악대학들도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세계 우수한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업들을 제공하며 21세기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매우 상이한 수업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개설하여 깊이 있는 해석 능력 함양이 가능토록 하고 있었으며, 4년의 학부 기간 동안 조성음악에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20, 21세기 현대 음악까지 음악이론과 음악사를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매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었다. 또한, 정통 서양 음악에서 벗어나 현재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장르 등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개설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 음악대학들의 커리큘럼 분석 연구를 통해, 필자는 21세기, 한국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전공필수의 음악이론 1-9 수업을 조성음악 분석법에서부터 현대음악 분석까지 아우르도록 설계하여 4년의 학부 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조성음악 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현대음악까지 접하고, 분석·해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이론 수업과 음악사 수업 내용이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분석 실습, 연주 실습 등도 연계된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논문투고일자: 2019년 5월 2일

심사일자: 2019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5월 21일